

마스크에 관한 궁금증

바야흐로 마스크 세상이다.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부터 시작해 버스로 이동하고, 길거리를 걸어 사무실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마스크는 우리를 지배한다. 사무실에서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들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감염 우려 탓에 일단 쓰고는 있지만 모르는 사항이 한 둘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칙이라는 게 전 세

계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정부가 연일 수백만 장의 공적 마스크를 뿌리다시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법과 부족한 물량 탓에 재사용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폐기 방법 등 마스크의 궁금증에 대해 알아본다. 마스크 사용에 대한 의료인과 전문가들의 조언은 다수설을 중심으로 참고했다.

**일상서 반드시 쓸 필요 없지만
대중교통 등 밀착공간 착용 필수
버릴땐 비닐봉투에 밀봉하고
6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 삼가야**

쓰고 벗을땐 표면에 손 대지 말고 끈만 잡아야... 물 마실때나 전화통화시 턱에 걸치는 행위 금물

올바른 사용법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예방 수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 항상 쓰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이상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은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나 공간을 제외한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바람직한 마스크 착용 기준

권고사항을 내놨다. 감염위험이 높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확진자·의심환자가 다녀간 시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등이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으로는 ▲정부가 '감염우려 지역'으로 공표한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 ▲폐질환·천식·독감·면역계 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노약자·아동 등 건강취약 집단에 속하는 사람 ▲대중교통 운전기사·판매원·역무원·우체국 집배원·택배기사·대형건물 관리원 등 다수 고객 응대해야 하는 직업의 종사자 등을 꼽았다.

또한 일반인들은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실외보다는 밀폐된 실내에서 착용하고,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 등 사람끼리 밀착하는 공간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는 착용시나 벗을 때 등 어떤 경우라도 표면에 손대면 안되고, 항상 귀에 거는 끈만 잡아야 한다. 이 때문에 물을 마실 때나 흡연시 또는 전화통화

시에 마스크를 내려 턱에 걸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손으로 마스크를 끌어 내릴 확률이 높고, 마스크를 내릴 때에 입이 접촉하는 안쪽 면이 깨끗하지 못한 목과 달을 경우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려면 아예 벗는 게 낫다.

마스크도 종류에 따라 착용하는 장소도 달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KF80 이상을 쓰는 것이 좋고, KF94는 밀폐된 장소나 실내에서 장시간 머무를 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80, KF94, K99 등급이 있다.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를, 숫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숨 쉴 때 오염물질이 걸러지는 정도를 말한다. KF80은 0.6㎛(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걸러낼 수 있는 미세면지 차단용 마스크다. KF94는 0.4㎛ 입자를 94%, KF99는 99% 차단하는 의료용 마스크다. 숫자가 높으면 차단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산소 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인 사용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무방

버릴 때도 한번 더 감염 조심

하루에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마스크도 수백만 개가 넘다 보니 폐기 방법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사용한 마스크가 아니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주요 감염원이 비말인 만큼 마스크 폐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보건 당국과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자신이 사용한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받은 키트 형

태의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활용해 처리해야 한다. 확진검사 결과 음성이나 오면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 환경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마스크 처리에 대한 지침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인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무방비로 버릴 경우 또 다른 감염경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오염된 비말 면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접거나 동글게 만 뒤, 귀끈으로 감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깊숙이 버릴 것을 권고한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침 등으로 비말이 많이 묻은 마스크는 비닐 봉투에 넣어 밀봉해 버리는 세심함도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버린 뒤 손을 씻는 디테일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광주 광산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유기농 천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직접 만들고 있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는 수제 마스크를 광산구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이 만들고 있는 마스크는 필터를 직접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돼 여분의 필터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사용엔 포장 봉투 보관...세탁엔 예방효과 없어져

부득이한 재사용 어떻게

마스크는 일회 사용이 기본이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다 구하기도 어려워 재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한번 쓰고 버려야 한다. 하지만 외부에 잠깐 다녀올 경우는 버리기가 아까울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6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했거나 젖은 것은 재사용을 삼가야 한다.

재사용은 안 하는 게 좋지만 할 수 없이 재사용을 한다면 침이 많이 묻지 않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비교적 깨끗한 마스크여야 하고,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둔 뒤 사용하라는 것이다.

부득이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에는 끈을 잡고 벗은 뒤, 깨끗한 종이 등의 위에 안쪽 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해서 올려 두는 방법을 권장한다. 더불어 버리지 않고 행거등 마스크 포장 봉투에 벗은 마스크를 넣어뒀다가 재사용하는 방법을 권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물론 다시 사용할 때는 마스크 표면을 만진 만큼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절약하기 위해 마스크를 세탁해 사용하거나 비말을 말린다는 이유로 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면 마스크 재질 구조가 파괴돼 감염 예방 효과가 없어진다.

면 마스크 효과는?

면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안 쓰는 것보다 도움은 되지만 말 그대로 방한용이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다 일회용인 보건용

보건마스크보다 못 하지만 비말 상당부분 막을 수 있어

마스크와 달리 매일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다.

면 마스크는 일회용 보건마스크보다는 못하지만 침방울이나 큰 비말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고,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데에

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일회용 보건마스크 부족에 따른 차선책이므로 면 마스크 착용시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한영 기자 young@·정병호 기자 jusbh@